

2002 한인 지도자 대회

2002 Korean-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회장 이오영) 는 지난 5월17일-19일까지 워싱턴 D.C TYSON CORNER HILTON HOTEL 에서 열린 “ 2002 KORAN -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에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 LA,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아틀란타, 휴스턴 등 지역 및 서북미, 서남부, 중남부, 중서부 4개 연합회 등의 현직 회장을 포함 미 전역의 전 현직 한인 회장을 비롯한 한인 지도자 급 인사 15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7일 오후 1시-5시까지 호텔에서 등록을 마치고, 미리 준비한 대형 버스2대와 워싱턴 한인 회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 대사관저로 이동하였다. 양성철 대사가 주최한 만찬을 시작으로 18일 오전 7시부터 오후3시까지 강행되는 스케줄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행사에 임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임으로 동포사회의 성장을 가능하는 척도가 되었다.



총회장이 Judy Olsen 에게 감사패를 전달

17일 전야제인 대사관 만찬에서 양성철 대사의

환영사에 이어 이오영 회장의 답사가 있었으며, 이어 U.S. Peace Corps의 Deputy Director, Dr. Jody Olsen 이 Keynote Speech를 했다. 이날 대사관저에는 원래 130여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참석자가 150명을 넘어 총연 임원들이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다.



진교륜 박사의 사회 모습

8일 아침 7시 AAPI 백악관 자문위원장인 DR. JOHN TSU 의 조찬 연설에 이어, 진교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PANEL PROGRAM 엔 이오영 회장의 “ OPENING REMARKS ” 를 시작으로 LEONARD RODRIGUEZ (THE WHITE HOUSE POLITICAL COORDINATOR), LUCIEN E. BLACKWELL (FORMER CONGRESSMAN), JOHN DUONG (EXECUTIVE DIRECTOR OF AAPI), SHINAE CHUN (DIRECTOR, WOMEN’S BUREAU,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MARINA TSE (DEPUTY DIRECTOR, 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Y

LEI (DUPUTY DIRECTOR, REPUBLIC NATIONAL COMMITTEE), CHARLES KIM (EXECUTIVE DIRECTOR, KOREAN AMERICAN COALITION) 의 총 7명의 미주요 분야의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로 구성된 PANEL LIST 들이 3시간 여 동안 휴식 없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마치고, 질의 응답을 끝으로 오전 PROGRAM 을 마쳤다.

석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이번 행사가 참으로 시의적절 한 때에 이루어진 행사로 미 중요 실무책임자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오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주 한인 100년을 맞이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이민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미국의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류사회에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민족으로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으로, 앞으로 100년을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미 주류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의 참여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연사로 참석하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권병현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의 간담회 모습

오후에는 권병현 재외동포 이사장이 주최하는 오찬 간담회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권병현 이사장은 한인 지도자대회 개최를 높이 평가 하면서 아울러 재외동포의 자산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미주 총연을 중심으로 협조하고 단결하는 한인사회가 될 때 민족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 후 재외동포센터 건립 모금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작년 미주 총연의 발전기금으로 모국국회와 정부로부터 1억 원을 책정 받았는데 총연이 수령했는지 모르겠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오찬 후에 오후 1:30부터 대도시 회장 및 연합회장으로 구성된 ‘미주총연 중앙상임 위원’ 들이 토론PANELIST (김석주 뉴욕한인회장, 문흥택 워싱턴 D.C 한인회장, 석균쇠 시카고 한인회장, 오재봉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김병직 서북미 한인회 연합회장, 서영석 서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오기택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장, 김영만 중남부 한인회 연합회장)로 등단하여 각 지역에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평소의 소신을 정리하여 주류사회 진입과 한인회의 역할 등에 관한 진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LA 하기환 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동양 부회장은 한국 민속음식인 떡 사업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는 “냉장고 보관 법” 폐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로비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후3시 7개항의 결의문(별지#1참조) 채택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2002 한인 지도자 대회”를 마쳤다.

결의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2002년 5월 17일-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주요 분야의 실무 급의

중요 인사와 미주 50개 주 150여명의 한인 주요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 한 "2002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0년 간의 이민 선조들의 열이 서려온 미국 사회에서 우리들의 현 주소를 재확인하고, 향후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성숙된 문화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이민 문화를 창출한다.
2. 우리는 지역 한인회는 물론 한인 단체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구심체로 Net-work를 구축하여 범 지역적, 동포적 차원의 민족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족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3. 우리는 우리끼리의 문화 공간에서 탈피하여

주류 사회의 문화와 공존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폭넓게 주류 사회에 적극 참여한다.

4. 우리는 신, 구세대가 평행선상의 목표점인 주류 사회 주역으로 지향하는 활기 넘치는 동포 사회 건설과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한다.
5. 우리는 본 "2002 한인 지도자 대회"가 주류 사회 진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연례화 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6. 모국 정부와 국회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가 아닌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민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산화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선구자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7. 우리는 600만 재외 동포의 요람이 될 동포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다.



이오영 총연 회장이 양성철 주미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회의 후 패널 리스트들과 함께한 사진 촬영



전체 회의장의 모습

제 2차 2001년 세계 한인회장 대회

2001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석, 총연 위상 강화에 주력

-전체회의 의장으로 피선되어 명쾌한 회의 진행-
-재외동포 교류 센터 건립 방안 마련, 결의문 채택 등 합의-

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둘째 날인 7월 10일에는 국립 현충일 헌화 참배, 이상주 한국 정신 문화원 연구원장의 특강과 청와대 예방의 일정이 이어졌다. 청와대에서 이오영 미주 한인 총 연합회(이하 미주 총연) 회장의 건배 제의로 시작된 회장단 간담회에서 권병현 재단 이사장은 동포센터 건립 기초 자금으로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오영 총연 회장은 관계 부처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거주국 한인 인구 비례에 의한 형평성 원칙 적용, 거주국에 재외동포 대표 단체를 육성, 발전시킬 것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 동포 재단에 관련된 세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이 날 저녁에는 최기선 인천 광역시장이 주최하는 저녁 만찬에 참석하여 인천 시정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보도자료 내용

2001 세계 한인회장 대회

<2001 세계 한인회장 대회 성황리 종료>

-재외동포 교류 센터 건립 방안 마련, 결의문 채택 등 합의-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2001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 230여명(미국 측 95명 참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7월 9일-7월 12일(이하 한국시간)까지 3박 4일간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한 세계 한인회장단 일행은 첫 날 개회식에 이어 이만섭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환영연에 참석하면서 인사를 나누



이한동 국무총리 환영 만찬에 감사하고 있는 이오영 회장

다음날인 11일에는 기획 예산처 장관, (주) 삼보 컴퓨터 이용태 회장, 통일부 장관의 특강에 이어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은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 피선되어 전체 회의를 이끌었다. 이 회장은 1996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5차 한민족 대표자 회의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던 경험을 비롯 세계 대회 회의 진행 경험이 풍부해 참석자들로 하여금 명쾌한 회의 진행에 찬사를 받기도 했다. 회장단 일행은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까지 2차에 걸친 전체 회의에서 재외 동포센터 건립 및 결의문 채택 등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국과 해외 동포들의 인적 교류 및 교육 문화 활동의 중심점이 될 재외동포 교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동 외교 센터 인근의 외교 통상부 소유 4,000여 평의 부지에 짓기로 결정하고, 정부로부터 10억의 예산을 지원 받고 약 400억 원의 건설비용은 관련 부처 및 해외 동포 성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회장단은 첫째, 조국 통일을 위한 600만 재외 동포의 역량 결집 둘째,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 촉구 및 그릇된 한국 인식 시정을 위한 노력 셋째, 재외 동포재단이 추진하는 분야별 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동참, 협력 넷째,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과 협력 다섯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건의 및 동포 관계 제반 업무가 재외 동포재단으로 조기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정을 모두 마쳤다.

결의문

21세기를 맞이하여 서울에서 열린 「2001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우리 한인회장 일동은 새로운 세기를 우리민족 웅비의 시대로 만들기

위하여 600만 재외동포의 역원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지난해 우리민족에게 커다란 희망과 감격을 안겨준 「6.15 남북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어 빠른 시일 안에 조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6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일본정부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의한 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거주 국에서의 그릇된 대 한국인식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며, 이를 위하여 결속한다.
3. 우리는 동포사회 발전과 동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경제 등 분야별 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동참, 협력한다.
4. 우리는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위하여 정부가 최대한의 관심과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재외동포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600만 재외동포 지원총괄기구로서의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며, 재외동포 관련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도모를 위해 동포관계 제반 업무가 재외동포재단으로 조기 일원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1년 7월 12일

2001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 이오영

제 3차 2002년 세계 한인회장 대회

지난 7월 9-12일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2002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병현) 주최로 서울과 홍천에서 전 세계 48개국에서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제2차 대회 시 의장으로 피선 된 바 있는 이오영 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은 세계각국 한인

대표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장은 각국 대표를 순회하는 것이 좋다고 아시아 대표를 추천 인준 한 후, 분과 별 토의를 거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영원을 담아 월드컵에서 보여 준 뜨거운 국민적 열기와 단결심을 21세기 한민족의 중흥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자며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장 모습

결의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2002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02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한 우리 한인회장 일동은 한민족의 중흥과 재도약의 21세기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600만 재외동포의 영원을 결집,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존속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동 법 개정 시 동 법의 적용 범위에 중국과 CIS 지역 동포들을 포함하고 동 법 재개정시까지 동 지역 동포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

2. 우리는 150여 개국에 거주하는 600만 재외

동포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재외 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참정권을 부여하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경제 교류를 통한 내외 동포들의 경제력 신장을 지지, 동참하며 특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상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창구일원화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 한인회 에서 적극 협력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재외동포재단이 600만 재외동포 업무의 전담기구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로 승격 활성화시켜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정부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킬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6.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일본 내에서 지방자치제 참정권을 주자는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7. 우리는 월드컵을 성공시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모국에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며 이 성과를 토대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더 웅비하도록 내외동포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위 7개항의 결의문 외에 각 국 대표들은 아래 내용을 양 당 후보에게 추가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2 세계 한인 회장단 서울 회의를 참가하고



기념촬영 모습



미주지역 회장님들과 함께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를 하고 나서